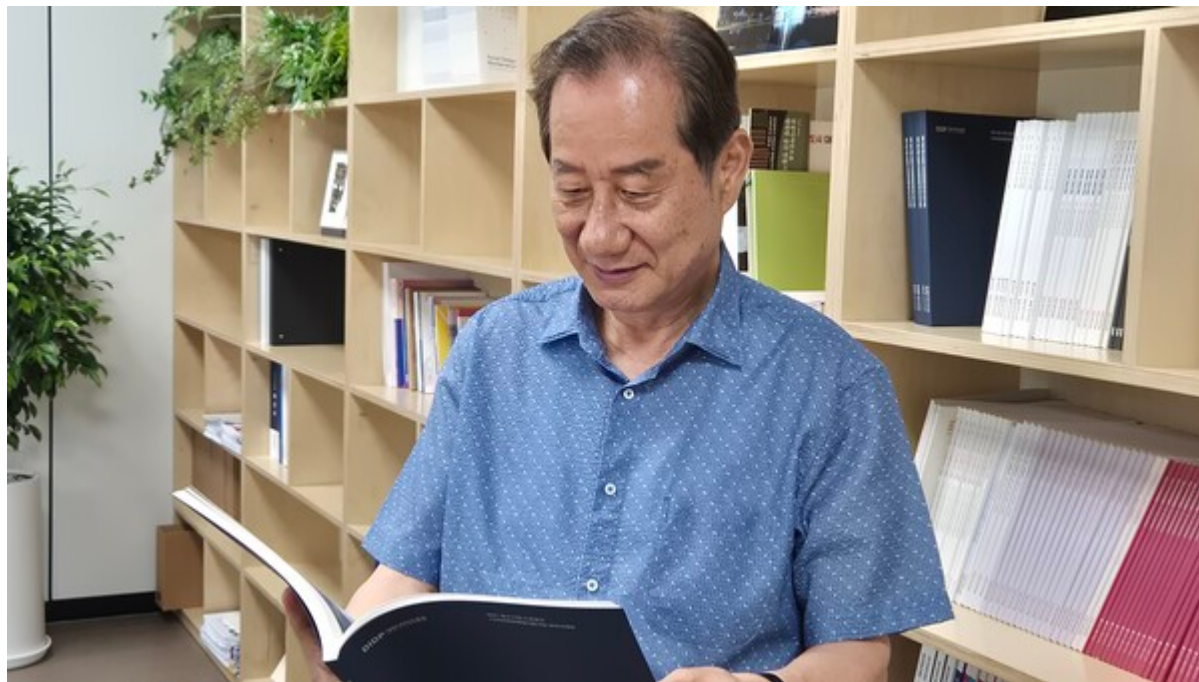


굿모닝충청

HOME > 클릭충청 > 대전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디자인이 명품 도시를 만든다"

✎ 이동우 기자 | ⓒ 승인 2025.06.16 08:12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이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이 원장은 일류경제 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라고 말한다. 이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디자인은 도시의 품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공공시설이나 기업의 제품 등에 잘 입히면 지역의 정체성도 드러나고 지역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공공디자인은 시민들에게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산업디자인은 지역

기업의 제품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주어야 한다. 이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디자인 전문인력의 육성과 보호에 앞장서기도 해야 한다. 이처럼 일류경제 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일할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잘 해내겠다.

진흥원장으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우선 조직 내부의 안정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구성원이 행복해야 고객에게도 행복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디자인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지역기업들의 디자인수요를 파악한 뒤 기업지원의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물론 기업들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는 물론 중앙정부의 자원을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 중앙정부에 과제도 제안하고 설득도 하면서 재원을 만들어 보겠다. 공공디자인 측면에서는 명품 대전을 만들기 위해 상징적인 건물이나 시설 등을 확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이나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

진흥원의 역할과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흥원이 출범한 지 5년 남짓 되기 때문에 초창기라고 볼 수 있어 역할과 위상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진흥원을 설립할 당시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대전, 세종, 충남·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의 디자인 전문 기관인데 대전의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충청권 대학의 디자인학과들과는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데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미약한 게 사실이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통해 충청권의 디자인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

공공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이장우 시장이 대전의 공공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디자인컨설팅도 하는 등 명품건축물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예전보다 도시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사이에 디자인 격차도 큰 만큼 동부지역의 낮은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야 할 것이고 준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민간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등도 강화해서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대전의 디자인산업과 인력 실태, 발전방안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업체가 800여 개나 되는데 대부분 1인기업으로 영세하기 짝이 없다.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430여 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역시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인건비 조달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지역디자인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 전문인력을 대전에 정착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능한 디자인 인력들

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직장을 구해 가는 형편이다. 결국 디자인 전문인력들이 대전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거리를 발굴하고 매칭시켜 주는 것도 진흥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 인재 정주 여건 개선대책인 대학 RISE 사업,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볼 계획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대덕연구단지의 성과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대전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다. 대전을 상징하는 건축물, 공공디자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전의 랜드마크로 으능정이 스카이로드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매력적이지 못하다.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벤치마킹도 했는데 그 당시 토목공사로 인식했던 지역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새로운 첨단기법을 동원해 콘텐츠를 혁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대전이 과학도시면서 과학을 상징할만한 랜드마크도 없는 상황에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역사 시계탑처럼 과학자시계탑을 대전역 광장에 설치하고 싶다. 매시간 장영실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등장하고 12시에는 12명의 과학자가 동시에 등장하면 관광객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대전시청을 오슬로시청처럼 명품건축물로 만들고 싶다. 대전이 낳은 스테인드글라스의 세계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인중 신부님의 작품을 입히고 싶다.

전북 태생인 이 원장은 대전이 실질적인 고향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고향에서 보낸 세월보다 대전에서 지낸 세월이 훨씬 길다. 대전대학교 교수와 대전발전연구원장, 대전인적자원개발원장 등 학계와 공공기관장을 두루 역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은사로 이 시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이동우 기자 dongdong701@naver.com